

# 평범한 대사 · 무심한 눈빛도 감동 자아내

## 윤가은 감독 장편 데뷔작 영화 '우리들'

두 아이가 나란히 선다. 그들은 멀쩡하게 떨어져 붙어 서지 않는다. 한 아이는 어색하게 양손을 만지작거리고, 다른 아이는 아무렇게나 팔을 늘어뜨려 놓는다. 서로를 쳐다볼 듯 말 듯 한 눈, 내밀 듯 말 듯 한 손, 다가설 듯 말 듯 한 발. 다행인 것은 이들이 같이(한 화면에) 있다는 점이다.

한때 이들은 혼자였다. 이젠 희망이라면 희망이고, 절망이라면 절망이다. 딱 여기까지라는 것, 여기까지라도 돼서 다행이라는 것, 영화 '우리들'(감독 윤가은)이다.

'우리들'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서 이 작품을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팔이용 어린이 영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윤가은 감독은 자신의 장편 데뷔작의 제목을 '우리들'로 지어 이 영화가 그때의 우리가 아닌 현재의 우리에게 관한 이야

기를 알린다. 요령이 높고 능숙해지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안다는 건 항상 어렵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건 매번 험겨워 11살 같다. 외톨이 초등학생 선(최수인)은 친구가 필요하다. 외롭게 한 학기를 보내고 여름방학이 시작된 날, 선은 전학생 지아(설혜인)를 만나 친구가 된다. 선은 지아와 방학 내내 붙어 다니며 행복한 여름을 보낸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식, 지아의 태도가 이상하다. 선을 갑자기 멀리한다. 지아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 속상하지만 하고, 울컥한 마음에 지아의 비밀을 공개해버린다. 둘의 관계는 꼬일 대로 꼬이고, 선과 지아는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받는다. '우리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연기다. 이 작품에서 배우들의 연기는 완벽함에 가깝게 자연스럽다. 윤가은 감독은 연기와 영화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흔한 이야기를 온전

히 이해하는 연출가다. 어떤 연기는 작품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어느 작품은 배우의 연기를 쫓아가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배우의 연기와 작품이 결합해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물을 내놓는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극의 메시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태도가 일치한다. 이 영화의 광범한 대사 하나, 무심한 눈빛 하나가 관객의 가슴에 와 꽂히는 건 그런 이유다.

타인과 관계를 맺어갈 때 생겨나는 감정들, 사랑·미움·질투·분노·감사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불쑥 찾아와 각자를 흔들어놓고 관계를 헝클어놓는지 윤 감독은 이해하고 포착했다.

최대한 연기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배우들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그의 연출은 진솔하고 시려 깊으며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관객은 친구 선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훔쳐주는 지아의 마음과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물건을 달라고 하는 선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친구가 괜히 미운 그 마음도, 그런 친구가 섭섭한 마음도 안다. 잘못된 걸 알지만 쉽게 다시 다가가지 못해 이어폰을 꽂고 무작정 걷는 그 마음도, 속상한 마음에 잠 못 이루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 마음을 안다.

그 마음들을 과거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배우들이, 윤가은 감독이 한 일이다.

'우리들'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건 윤 감독이 이 작품을 통해 결국 상대를 향한 일보 전진을 이야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영화 '파수꾼'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인데(남자 고등학생들의 이야기), '파수꾼'이 마음의 엿박자가 만든 관계의 파국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은 그런데도 손 내밀 것을 눈빛으로 제안해 관계의 진행을 유도한다.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관객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해야만 하는 작품이다.

/이성주기자



2017 FIFA U-20 월드컵 공식 엠블럼 · 슬로건 공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전이 열리는 '2017 FIFA U-20 월드컵'의 공식 엠블럼과 슬로건이 공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이번 U-20 월드컵은 2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식 슬로건은 "Trigger the fever(열정을 깨워라)"로 지난 2002 한일월드컵처럼 온 국민이 열정적으로 임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으며, 공식 엠블럼에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상징하는 단청과 오방색을 사용해 만들었다.

발표식에 참석한 김대은 2017 FIFA U-20 월드컵 조직위원회 전라북도총무협회장은 "전주에서 치르게 되는 U-20 월드컵 경기를 성공리에 치르기 위해 혼신을 다해 준비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 진안군청 역도팀 유동주 리우올림픽 금빛 도전

진안군청 역도팀 유동주 선수(23)(사진)는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 금빛 사냥에 나선다.

한국 남자 역도의 기대주 유동주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한다.

유 선수는 지난 2013년 제44회 아시아남자역도선수권 1위를 비롯해 제96회 전국체전 은메달 3개, 2015년 실업역도연맹회장배 3관왕 등 국내 및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따내며 기량을 갈고 닦아왔다.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아시아역도선수권 85kg급 인상에서도 3위에 오르며 한국 역도계의 기대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

50여일 남은 리우올림픽을 대비해 태릉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유동주 선수는 "진안군 출신 바르셀로나 역도영웅 전병관 선수처럼 꼭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며 "남은기간 최선을 다해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역도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 태연 28일 두 번째 미니앨범 '와이' 로 활동 시작

올여름 펼쳐질 걸 그룹 대전에 '최종 보스'가 등장할 예정이다.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27)이 오는 28일 두 번째 미니앨범 '와이(Why)'로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10월 발표한 첫 번째 미니앨범 '아이(I)'로 각종 음원·음반 차트, 아이튠스 종합 앨범 차트,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차트 등의 1위를 휩쓸며 솔로 가수로도 완벽하게 자리 잡은 뒤 내는 앨범이다.

이와 함께 태연은 오는 7월9~10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 8월6~7일 부산 KBS홀에서 단독 콘서트 '태연, 버터플라이 키스(TAEYEON, Butterfly Kiss)'를 연다. 태연은 가창력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성주기자

# 성폭행 논란 박유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 또 다른 여성이 같은 혐의 고소 '사실무근' 주장하지만 글썽...

반전에 반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귀여운 외모를 재료로 순수하고 건실한 이미지를 팔던 연예인의 민낯이 드러났다.

한류스타, 그룹 'JYJ' 박유천(30)이 한순간에 곤두박질쳤다.

화장실 성폭행 논란때문이다. 지난 10일 유흥주점 내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무슨일인지 고소자 A씨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소를 취하하고 사건이 덮히는가 했더니 악재가 또 터졌다.

바로 다음날 또 다른 여성 B씨가 같은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 전담팀'까지 꾸렸다.

박유천은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혐의가 밝혀지면 연예계에서 은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혐의와 무관하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이다. '사실무근', '무혐의'를 주장하지만, 이미 스타의 체면은 구겨질대로 구겨졌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생긴 일어서 더욱 지탄을 받고 있다.

인기 연예인, 한류스타 박유천은 어떻게 될까. 연예계의 비슷한 사례로 박유천의 미래를 짚어봤다.

◇그나마 밝은 미래, 박시후

지난 2013년 2월 한 연예인 지망생 B씨는 탤런트 박



시후(38)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박시후는 무고 혐의를 이유로 맞고소로 대응했고 법적 공방을 벌이다 결국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 번 망가진 이미지는 어쩔 수 없었다. 3년여의 지속 기간 끝에 지난 1월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으로 복귀했지만, 드라마 '역전의 여왕' '공주의 남자' 나 영화 '내가 살아남았다' 등을 통해 누린 전성기의 인기와 관심은 받지 못했다.

◇오래오래 억울하게, 주병진·이경영

현재는 각종 방송과 영화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MC 주병진(57)과 배우 이경영(56)은 11년의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답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주병진은 2000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7년간의 긴 법적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지 실추로 진행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방송 복귀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이경영 역시 2001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역시 11년 동안 자숙하다 2012년 영화 '남영동 1985'로 다시 대중 앞에 섰다.

이수는 2009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집으로 불러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됐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MBC TV '나는 가수다' 등을 통해 방송 복귀를 시도했으나 대중의 반감에 가로막혔다. 최근 뮤지컬 '모차르트'에 캐스팅됐다가 어마어마한 반대 의견에 하차하기도 했다.

여전히 음원이나 공연만으로 활동할 뿐 대중 앞에서 지 못하고 있다.

/이성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